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사순절 제1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0(통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겨울을 지내며 황량해진 화단에 작은 초록빛의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기에 들어선 저희 마음속에도 은총의 햇살 한줄기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냉랭하게 얼은 마음은 녹여주시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깨뜨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씨앗을 싹틔우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밝은 대낮에도 길이 아닌 길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져 앞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어두운 탐욕의 그림자가 점점 깊어지는 이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등불을 들고 바른 길을 밝히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7:15 ..... 인도자

♠ 교 독 문 ..... 124. 사순절(1)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장성호 선생 II. 김재흥 목사

응답송 ..... 찬양대

찬 송 ..... 345(통461).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 다함께

성경봉독 ..... I. 삼하23:1-4 ..... 인도자

II. 눅11:33-36 ..... 박혜경 권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햇살의 사람 ..... 이성운 전도사

II. 그대 눈은 밝은가?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 찬 송 ..... 366(통485).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가야할 길이 보이지 않을  
수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자신을 다스  
리도록 하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세상과 환경만을 탓하며 나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직시하지 못하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진리  
의 햇불을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빛으로 안팎의 어두움  
을 물리치며 살겠습니다. 밝히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3월 선교회 월례모임	3월 기도의 밤
준비 찬양 : 장성호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장성호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박석희 집사

3월	영접위원	김인걸 홍순구 박규석 안홍숙 박경선 오자영
	헌금위원	한완식 박홍재(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환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네 차례의 환멸을 느꼈다. 나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환멸을 맛보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떠난 일을 후회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희망이 그로 하여금 이 최초의 환멸을 극복하게 했던 것이다. 그 후, 또 예수님이 그가 원하던 그대로의 예수님이 못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예언자요 메시아인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겠다고 고집부리지 않고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을 원했을 것이다. 그의 가장 심각한 환멸은 예수님이 나약하게 죽으러 가시려 할 때 일어났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이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이기도 했다.

이상의 환멸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심한 환멸 네 가지와도 상통한다. 최초의 환멸 - 이것은 분명히 가장 견디기 힘든 환멸이다 - 은 공동체에 도착했을 때 나타난다. 우리에게는 뒤에 남겨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두 번째 환멸은 공동체가 기대했던 것만큼 완벽한 것이 아니며 나름대로 약점과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나타난다. 우리의 이상과 환상들이 깨진다. 그리고 눈 앞에서는 현실이 버티고 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오해받거나 심할 경우 배척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실례를 들면 우리가 책임직에 선임되지 못하거나 희망하던 일을 맡지 못하게 될 때 세 번째 환멸이 나타난다. 그리고 네 번째 환멸, 가장 견디기 힘든 이 환멸은 분노와 좌절 의식이 우리 내부에서 끓어오름으로써 생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이다.

만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완전히 흡수되려면 우리는 이러한 환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런 것은 모두가 새로운 심화(深化) 과정이며 내적 자유를 향한 통로들이다.

나눔과 공동체 생활이라는 위대한 이상을 지녔던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환멸을 느끼고 상처받고 냉소적인 모습을 띠 때 끔찍한 생각이 든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면 그들은 벼룩의 미각을 상실하고 정치 운동이나 환

상적인 정신 분석에 몰입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정치나 정신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탓으로 그런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동체 안에는 열정적인 젊은이들에게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고 자극하면서도 스스로의 지혜 부족이나 오만 때문에 그들을 실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

공동체라는 세계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고 씨앗이 좋은 꽃을 피울는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될지 감지해 내는 일은 한결같이 쉽지만은 않다. 공동체를 창설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

나는 내가 속한 라르슈 공동체나 그 밖의 라르슈 공동체에 열정으로 충만되어 찾아왔다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장벽과 불완전함과 오만으로 인해서 기만당한 느낌을 받게 된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청하는 바이다.

## 노년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요, 영원과 가장 가까운 시기이다. 노인 중에도 두 양상이 있다. 과거와 환상 속에서 살며 자기 주변의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걱정 많고 신랄한 노인이 있다. 그들은 젊은이들을 퇴박한다. 그들은 자신의 슬픔과 고독 속에 폐쇄된 채 자기 안으로 움츠러든다.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일과 책임을 벗은 자유를 활용하여 새로운 청춘을 발견하는 노인들도 있다. 그들에게는 어린 아이의 경이감뿐 아니라 성숙된 지혜도 깃들여 있다. 그들은 기능을 수행하던 세월을 잘 마무리지은 까닭에 권한에 매달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들은 스스로 누리고 있는 마음의 자유와 자기 한계 및 약점에 대한 솔직한 태도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를 밝혀주는 빛이 된다. 그들은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동정과 용서의 상징이 된다. 그들은 공동체의 감춰진 보화요, 일치와 생명력의 근원이 된다.

## 졸업을 축하하며

엣그제 솜털 보송보송한 새싹같던 아기들이  
 벌써 한 마디를 졸업하는 새 잎 피우는 시기가 되었다니  
 참 놀랍고 기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울세라 추울세라 목마를세라 적절한 절기의 축복을 주시고  
 꺾일세라 아플세라 온갖 위험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 정성을 다해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주신 선물 몸바쳐 정성을 다해 기르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 선생님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눈 뜨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의 수고와 은혜 그리고 청파 공동체에 감사 드립니다  
 넷, 말씀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하신 목사님,  
 전도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연약한 뿌리에 기름진 흙,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삽 한 삽  
 든든한 둔덕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배 어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스쳐간 모든 분들의 사랑과 돌봄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들의 꿈나무 늙늙한 한 그루 나무로 자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스쳐간 모든 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와 돌봄이  
 그리고 뿌리로부터 우듬지까지 스스로의 갈고 닦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 청파교회학교 졸업예배에서 임창선 권사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한상의 정영선   곽상준 최경미   구명자 김근중 정옥영 김일량 이은옥  
 김철수 유영남   박규석 박경선   박지인 이광용 형인순 이봉옥 임승동  
 백혜숙 홍순구   안홍숙 조문규   진정숙 왕성환 강순배 이현순 무 명  
 최종원 김기석   김희우 김지호

### 월정헌금:

이교영 김명순   김수진 김승현   김순자 박준희 이기분 윤성종 김윤정  
 이유선 방극숙   은자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김문주 최윤희 황의일  
 류건형 이주은

### 감사헌금:

김준우 최문희   한종목 고숙이   장원호 박성희 전충길 원인해 송희원  
 권채영 한훈식   심소재 무 명

### 생일감사헌금

오송경 김준호   곽혜자 이광섭 김수연 임주빈 최현옥

### 녹색꿈 헌금:

윤주원 최윤선   이성익 박옥식 곽상준 최경미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노 봉 임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영 한	
안 디 옥	임 정 자	박 미 영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최 종 미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문 금 석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이 갑 재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이 봉 옥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이 형 숙	
가버나움	안 홍 숙	오 현 정	박 찬 정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김 희 우	
갈라디아	유 경 순	김 명 희	김 수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윤 정 화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십여 일간의 영적인 순례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 **월례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3. **연주회** : 선교회 월례모임 전에 오카리나 전문 연주단, '오카리나인수원'의 연주회가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4.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3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5. **연합속회** : 3월 연합속회가 6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인도 - 베들레헴 속 식사준비 - 다메섹 속
6. **신앙다지기** : 3월 7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매주 토요일에 8주간동안 제 3기 신앙다지기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1월, 2월 중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초록가게 봉사자 모집** : 초록가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신앙실천** :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정해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시온 속 (다음 주 : 시온 속)

\* 설거지 봉사 : 김남홍 선우영 (다음 주 : 이정현 박권동)

### 새교우 소개

김태훈 (5남선교회)

김도연 (6여선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